





# '4살 돌발영상' 거듭난다

## 소재 다양화 박차... '해묵은 영상' 신설도

### 볼철 프로그램 개편

방송뉴스의 새 장르를 개척한 '돌발영상'이 또 다른 변화를 시도한다. 그동안 YTN 뉴스 프로그램 가운데 한 코너로써, 3분 안팎의 단일 영상을 제공해온 '돌발영상'은 YTN 편성 개편에 따라 4월 30일부터 뉴스에서 독립해 별도의 한 프로그램으로 편성된다.

독립 프로그램으로 다시 탄생할 '돌발영상' (14:40 초방, 16:40 재방)은 정치에 치우쳐 있던 소재의 한계를 탈피해 앞으로 사회, 문화, 스포츠 등으로 영역 확대를 시도하면서 더욱 다양한 전달 방식, 제작 기법과 함께 10분 정도의 분량으로 매일 시청자들을 찾아갈 계획이다.

프로그램 '돌발영상'의 구성을 살펴 보면, 기존의 돌발영상은 그대로 유지되면서 -격언이나 속담, 사자성어 등을 연상케 하는 상황을 편집한 '오늘 문득...' -특정인의 주장이나 현안의 의미를 되새길 수 있는 말들을 들려주는 '말을 말하다' -화면에 담긴 난해하거나 생소한 말, 어려운 한자성어들을 풍자적으로 해석해 주는 '돌발 사전' -같은 사안에 대한 여러 사람들의 주장들 중에서 한마디씩 짚기 위해 새로운 미의 문장으로 재구성하는 '돌발 글짓기' - 지금은 묵혀 있는 1990년대 자료화면을 활용, 멀지 않은 과거의 정치상황과 사회 이슈 등을 되돌아 보는 '해묵은 영상' 등의 코너들이 그날 그날 순차적으로 2~3개씩 배치된다.

돌발영상 제작진은 "4년 전 돌발영상이 처음 선을 보였을 때, 기존의 고정관념을 깬 새로운 개념의 뉴스 전달 방식을 개척했다는 평가를 받았지만, 지금은 이미 돌발영상 자체도 하나의 '기존 뉴스' 형식으로 인식되고 있다"며 "점점 멀어지고 있는 시청자들의 뉴스에 대한 관심을 다시 뉴스로 끌어 들이기 위해 새로운 전달 방식을 개발해 나가는 것"이라고 돌발영상 확대의 취지를 설명했다. YTN은 이번 편성개편에 맞춰 외신뉴스를 통해 영어를 배우는 '생생 뉴스영어' (이보영 진행, 10분 길이)를 매일 프로그램으로 신설했다. 매 시각 이어지는 YTN 뉴스는 아침, 낮, 저녁 시간대 별로 특화해 기자 참여 코너 외에 전문가 인터뷰를 확대하는 등 더 빠르고 깊이 있는 뉴스를 전한다.

### 환경조경박람회 '랜덱스2007'



대한민국 환경조경박람회, '랜덱스 2007'이 5월 22일부터 27일까지 6일간 경기도 고양시 일산 호수공원에서 열렸다. YTN과 경기도, 한국조경학회 등이 공동으로 주최하는 이번 박람회는 '자연·인간·기술이 어우러진 삶'이라는 주제로 백여 개의 국내 조경 관련업체가 참여해 다양한 조경 시설과 관련 용품을 전시했다. 특히 이번 박람회에는 새집증후군을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친환경 제품이 소개되는 등 수준 높은 환경조경문화를 선보였다.

### YTN, 기협축구대회 우승



YTN이 4월 19일 파주 NFC에서 열린 기자회견 서울지역 축구대회에서 정상에 올라 통산 3번째 우승을 차지했다. 조선일보와 CBS를 잇달아 누르고 결승에 오른 YTN은 한국경제TV와의 최종 결승전에서 득점없이 비긴 뒤 승부차기 끝에 7대6으로 이겨 2002년과 2004년에 이어 통산 3번째 우승을 달성했다. 4번의 승부차기에서 선방을 펼친 골키퍼 김재형기자는 대회 최우수 선수에 뽑혔고, 5개의 골을 넣은 최기훈 기자는 득점상을 수상했다.

### 주요 인사 출연



도올 김용옥 (클로즈업 4.5)



최민식 (뉴스 Q 5.8)



낸시랭 (뉴스 Q 5.14)



백기완 (클로즈업 6.4)



염홍길 (뉴스Q 6.14)



# “다양한 콘텐츠 · 풍부한 소재로 승부 SO확보 관건...공익채널 선정 시급”

## 황 성 수 사이언스TV본부장

9월 17일 개국을 앞두고 어느 때보다 바쁘게 움직이는 사이언스TV본부. 주요 프로그램 기획과 편성 방향, 시스템 구축 등은 마무리 단계에 있다. 또 사이언스TV에 관심을 갖는 외부기관과의 MOU도 하루에 2건씩 체결했다. 사이언스TV본부 사령탑을 맡은 황성수 본부장에게 사이언스TV의 개국 준비상황과 앞으로의 계획 등을 들어봤다.

**Q** 요즘 고생이 많겠습니다. 개국 준비는 잘돼 가고 있는지요?

**A** 네, 현재 시스템 구축은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조직도 어느정도 정비됐고 개국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모든 준비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사이언스TV는 특별한 변수가 없는 한 7월 30일 시험방송에 들어가 9월 17일 개국방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Q** 편성은 어느 정도 매듭이 지어졌습니까?

**A** 네, 이미 외주제작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지난달 140여편에 대한 응모작 가운데 3차례의 심사과정을 거쳐 11편을 확정했습니다. 국내의 구매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선정작업이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이와 함께 PD별로 자체 제작 프로그램에 대한 배정을 끝내고 세부 기획안을 보완하고 있습니다.

**Q** 아무래도 사이언스TV가 선보일 프로그램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요? 어떤 프로그램을 꼽을 수 있겠습니까?

**A** 결국은 프로그램으로 승부해야 한다는 것이 저와 사이언스TV 식구들 모두의 신념입니다. 프로그램은 유익하기도 해야 하겠지만 우선 재미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과학분야는 자칫 어렵고 딱딱할 것이라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되는데 이런 생각을 돌려놓는 것이 저희들의 사명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주요 프로그램 가운데 사이언스 투데이는 데일리 프로그램으로 그날의 국내외 과학계 소식을 총망라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이밖에 버라이어티 생활과학 프로그램인 '유쾌한 과학 전망대', 퀴즈가 가미된 '마이크로의 세계', '사이언스 위대한 발견', 발명 관련 프로그램인 '상상발전소', 로봇 다큐 프로그램 'I AM 로봇' 등에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또한 어린이 프로그램으로 '춤추는 꼬마 요리사의 과학' '신나는 과학교실' 그리고 '스포츠 사이언스', '시네마 사이언스' 뿐만 아니라 '스타킹 속의 과학' 등 여성 관련 프로그램, '날씨로 세상보기' 등 기상 관련 프로그램, 'TOP 브랜드 21', '과학기술 현재

와 미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Q** 네, 자세히 설명해 주셨는데 무척 기대가 큼니다. 약간 다른 질문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요즘 미드(미국 드라마) 열풍이 거세지 않습니까? 드라마와 같은 프로그램은 없지요?

**A** 드라마는 과학에 대한 흥미를 유발하는 좋은 장르라고 생각합니다. 사이언스TV가 발전하면 자체 제작 드라마도 머지않은 장래에 선보이게 되겠지만 우선 영국 BBC 등 외국 방송사가 제작한 우수한 과학 드라마를 편성할 계획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작비에 여유가 있다면 영화 분야도 관심의 대상입니다. 이밖에 국내, 외 과학 다큐멘터리도 엄선해 선보일 계획입니다.

**Q** 프로그램을 아무리 잘 만들어 놓아도 많은 사람들이 봐야할 텐데 채널 론칭 계획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A** 네, 다른 PP들도 마찬가지로 PP의 성공은 바로 플랫폼 확보와 직결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케이블 SO가 연초에 대부분 편성 개편을 한 상태지만 사이언스TV의 콘텐츠와 중요성을 이해해 주신다면 채널 론칭이 자연스럽게 이뤄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현재 방송위원회에서 공익채널 선정 관련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예고돼 있는데 이공계 육성이나 과학기술 중심사회 구축 등 국가적인 과제와 맞물려 생각할 때 무난히 공익채널로 선정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Q** 최근 사이언스TV가 준비단계임에도 여러곳과 MOU를 맺는 등 활발한 행보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을 간단히 소개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A** 네, 사이언스TV는 채널은 별개지만 YTN에 소속된 본부 형태의 조직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직상으로는 사이언스TV와 YTN은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다는 뜻도 됩니다. YTN은 우선 사이언스TV의 출범을 기념해 과학기술부와 공동으로 내년 봄쯤 세계의 석학을 초빙해 '월드 사이언스 포럼'을 개최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 행사는 앞으로 더욱 발전시켜 정기적인 행사로



개최할 계획입니다.

MOU를 체결한 곳도 해양천문테마파크를 조성중인 경기도 화성시에 이어 대전지역 연구소와 벤처 등이 참여하고 있는 대덕기관장협의회, 원자력연구원 등을 들 수 있겠고 현재 여러 기관·단체와 MOU를 추진중이거나 프로그램 협력 등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과학에 관심이 많은 지자체 등도 적극적인 협력의사를 밝혀오고 있어 협력관계를 맺는 곳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Q** 끝으로 사이언스TV의 출범에 대해 과학계는 물론 많은 사람들의 기대와 관심이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이 기회에 정리해 주시죠.

**A** 네,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과학기술 발전이 중요하다는 사실은 누구나 인정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선진국은 말할 것도 없고 중국의 경우만 하더라도 이미 2001년에 국영방송인 CCTV-10을 통해 과학방송을 실시하고 있고 범국가적인 차원에서 과학방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다소 늦었지만 과학계나 국민 모두의 관심은 이에 못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회사 내부는 물론 과학기술부를 비롯한 과학계, 그리고 방송위원회 등 방송계의 따뜻한 관심과 격려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국내 최초로 선보이는 사이언스TV야말로 '대한민국 과학채널'로서 그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구성원 모두도 열심히 노력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기대해주세요 - 날씨 그래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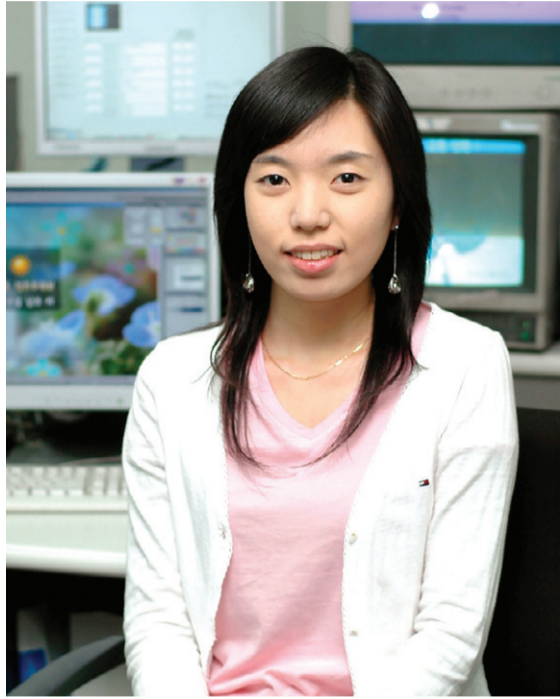
# 날씨 속에서 자라는 꽃

“계절은 아름답게 돌아오고, 재미있고 즐거운 날들은 조금 슬프게 지나간다” 아름다운 계절 봄을 맞아 날씨 그래픽이 변신합니다.

새벽 5시. 이른 새벽 기상청의 예보와 함께 기상팀의 하루도 시작됩니다. 기사를 작성하는 바쁜 선배들의 모습과 그래픽을 만드는 분주한 손길을 거쳐서 1분 남짓한 날씨가 방송되는 것을 보고 있으면 아직도 가끔 가슴이 두근거리곤 합니다. 아침 10시가 다 돼서야 새벽 근무를 마치는 강병운 선배와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며 컴퓨터 앞에 앉아 하루를 준비합니다.

거의 매시간 방송되는 뉴스의 날씨와 교통방송 그래픽을 준비하면서 낮을 지나고 나면, 오후 5시 예보가 팩스에서 나오고 동시에 기상팀은 하루 중 가장 바쁜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특히나 여러 사람이 노력해서 만드는 창날씨와 새벽날씨, 그리고 5시 뉴스의 날씨 출연까지 준비해야 하는 빡빡한 일정을 한 시간 동안 정신없이 보내고 나서야 한숨을 돌리며 하루를 조금씩 정리하기 시작합니다.

바쁜 일정 속에 가끔 컴퓨터나 장비가 멈춰버리거나 고장 나서 당황할 때, 실수로 그래픽의 날씨가 기온을 틀리게 입력해 잘못된 정보가 방송될 때, 혹은 예기치 못한 일들로 아무것도 모르는 제가 고민하고 있을 때



상 충고와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선배님들 덕분에 하나씩 차근차근 배워가고 있습니다. 얼마 되지 않았지만, 더운 여름 기상팀과의 인연을 시작으로 가을, 겨울이 지

나고 새로운 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매년 계절이 바뀔 때마다 날씨 그래픽도 새 단장을 하게 되는데, 이번 봄에도 파릇파릇한 새싹 같은 날씨를 전해드리게 되었습니다.

**“날씨를 전하면서 화분을 길러보는 건 어떨까?”**

봄을 맞아 그래픽을 어떻게 바꿔볼까? 생각하면서 병운 선배가 던진 말입니다. 화분의 작은 새싹이 매일 조금씩 자라나서 나무로 변해가는 모습을 날씨 그래픽 속에 담아보자는 말은 제겐 신선한 충격이었습니다. 기상캐스터가 전하는 날씨정보를 듣다가 어느 날 문득 조금 더 자라있는 화분을 보게 된다면, 자칫 딱딱하고 무거워질 수 있는 뉴스 안에서 1분의 짧은 시간이 작은 퍼포먼스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곳 기상팀에 처음 온 때가 8월의 무더운 여름이었는데 어느덧 6개월이 흘렀습니다. 항상 새로운 생각과 뛰어난 실력으로 하나라도 더 가르쳐 주시려는 병운 선배, 얼굴도 마음도 예쁜 기상캐스터 선배들과, 언제나 좋은 친구가 되어주는 수줍게 고마워요, 그리고 지금도 옆자리에서 바쁘게 일하시는 진두선배 존경합니다.

열심히 할게요 기상팀 파이팅!!!

정진아 문화과학부

KCTA 2007 Conference 참관보고서

## 케이블TV의 미래를 진단한다

‘Create your tomorrow’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KCTA)가 지난 6월 13일(수)부터 15일(금)까지 사흘간 제주도 제주ICC에서 개최한 KCTA 2007 Conference의 주제이다. 이를 위해 KCTA는 유명한 미래학자인 자크 아탈리(Jacques Attali)의 “디지털시대, 라이프스타일 변화와 미디어 미래”라는 특별강연을 실시하고 또, ▲방송·통신 컨버전스시대 케이블TV의 미래와 전략 ▲FTA 체결과 한국 방송콘텐츠산업의 경쟁력 등에 대한 토론도 벌였다. 이에 따라 컨퍼런스의 주요내용을 간략하게 소개하고자 한다.

### # 1. 자크 아탈리 교수, 미래 라이프스타일 변화 선도역할 강조

한국은 세계적으로 선도적인 미디어 환경을 가진 국가로서 디지털미디어 미래시대의 변화를 먼저 겪고 있다. 케이블TV는 많은 사람들이 집이 아닌 곳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으며, 맥내에서도 미디어를 통해 정보를 끊임없이 요구한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 그러나 TV 시청시간은 줄어들고 있다. 이는 TV시청이라는 수동적 정보습득이 아닌 적극적인 활동을 통해 정보를 얻는 것을 의미한다.

유투브는 기존 미디어가 시청자에게 정보를 전달하는 방식과는 확연하게 차별화된다. 주스트는 인터넷과 HD방송에 기반하여 여러 사람들이 동시에 접근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향후 광고는 맞춤형 모델로 갈 것으로 본다. 새로운 서비스 등장과 신규 포지셔닝 전략이 계속 등장할 것이므로, 특정 매체가 점유율을 유지하기는 점차 어려워질 것이다.

### # 2. 이관훈 CJ케이블넷 대표이사, 디지털화로 컨버전스 선도할 터

방송과 PC의 컨버전스에 따른 대안은 ‘디지털화’ 뿐이라고 생각한다. TV는 단방향의 개인매체이고 PC는 양방향의 공동매체이었는데, 서로의 장점을 수렴하지 않으면 생존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 # 3. 배준동 SKT 전무, 파트너십 강조하며 MSO와 협력의사 밝혀

통신사업자의 여러 제휴업체들을 M&A로 갈 것인가, 아니면 파트너로 갈 것인가 하는 구별은 있겠지만 파트너십의 중요성이 점차 커지고 있다. SKT는 7월부터 허용되는 번들서비스와 관련하여 주요 MSO와 새로운 상품 개발을 협의하고 있다.

### # 4. 최취영 NHN 대표이사, 다른 사업자와 제휴 등 협력 강조



KCTA2007 행사중 '케이블TV의 미래전략 토론회' 모습

네트워크의 특성은 자신의 핵심역량과 타인의 핵심역량이 시너지효과를 내는 것이다. NHN이 잘하는 분야와 다른 사업자가 잘하는 분야가 협력할 수 있을 것이다. NHN은 모든 사업자와 제휴할 준비가 되어 있다.

### # 5. 컨퍼런스 요약

이번 컨퍼런스의 경우 핫 이슈는 없었지만, 업계에서 디지털화를 매우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그리고 디지털화로 인한 변화는 정치와 경제, 사회, 문화, 생활 등 우리 삶의 대부분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백상기 차장대우 매체협력팀



공채 11기

# 꿈을 이루는 YTN이 되길 ...

여러 관문을 뚫고 입사한 공채 11기, 이들의 생각과 포부를 들어본다.  
(아래 사진은 4월 29일에 있었던 필기시험)



**이승현** 81.5.31  
동국대 신문방송학 / 방송기자

꿈이 이루어졌습니다. 합격자 발표 날 느꼈던 감격은 살아오면서 느낀 감동을 모두 합한 것보다 더 큰 것이었습니다. 지금까지의 과정이 '어떻게 기자로 입사할 것인가'에 집중했다면 이제부터는 온전히 '어떤 기자가 될 것인가'를 고민하겠습니다. 힘든 순간들이 오더라도 기자로 다시 태어난다는 마음가짐으로 이겨내겠습니다. 더 큰 꿈을 이룰 기회를 얻은 지금부터는 YTN 기자로서 부끄럽지 않은 모습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강진원** 81.12.2  
한국외대 정치외교학 / 방송기자

합격 소식을 듣고도 믿기지 않았는데, 제 이름과 사진이 들어간 사원증을 받고 나서야 비로소 제가 YTN의 가족이 됐다는 걸 실감했습니다. 사원증을 보고 기뻐하시는 부모님의 모습을 봤을 때의 그 뿌듯함과 설렘... 이 마음가짐을 계속 간직하겠습니다. "호랑이가 새끼를 바닥에 내던지는 것은 새끼가 미워서가 아니라 강하게 키우기 위해서다"는 사회1부장님의 말씀을 잊지 않고, 강한 새끼 호랑이가 될 수 있도록 바로 뛰겠습니다.



**김응래** 79.4.20  
고려대 영문학 / 방송기자

입사 첫날 사원증을 받고 '드디어 내가 기자가 됐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합격 소식을 접했을 때만큼이나 감격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잇따른 교육 과정을 통해 이제는 기자로서의 책임감을 느껴야 할 때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사장님 이하 선배님들과의 대화를 통해 YTN의 일원이 됐다는 것에 대한 자부심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처음 기자가 되기로 했던 마음가짐과 현재의 두려움 반, 기대 반의 심정을 유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자는 항상 어느 정도의 긴장감과 두려움을 유지해야 한다는 선배님들의 조언을 항상 명심하겠습니다.



**박조은** 83.5.4  
서울대 언어학 / 방송기자

방송기자로 입사한 박조은입니다. 한 가지 일에 잘 몰두하는 편입니다. 때로는 '미친 듯이' 빠지기도 합니다. 그렇게 열정을 갖고 하다 보면, 어느새 頂上이라 생각 되는 곳에 올라가 있곤 했습니다. 하지만 꿈을 이루고 오를 정상은 늘 더 높은 정상이 있었습니다. 지난주, YTN이라는 산에 올라 '야호'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훌륭한 기자'라는 엄청난 나게!! 더 높은 산봉우리를 쳐다봅니다. 감격과 두려움이 교차합니다. 이런 초심 잃지 않겠습니다.



**신윤정** 82.4.30  
서강대 경영학 / 방송기자

'세상의 중심에 서서 바른말 바른 생각을 소통하는 방송기자' 중학생부터 바라온 저의 꿈입니다. YTN에 입사해 저의 꿈을 이룰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게 돼 무척 기쁘고 감사합니다. "직장 생활은 첫 10년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아버지의 말씀처럼 첫 10년을 성실한 모습으로, 꿈을 이루기 위한 노력을 이어 가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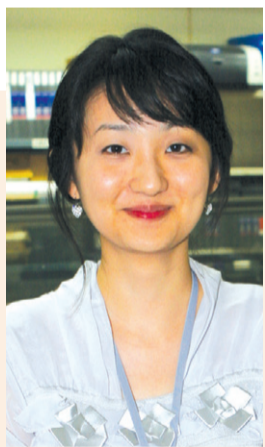
**장아영** 83.11.30  
연세대 신문방송학 / 방송기자

'사람과 어울리는게 좋습니다. 하지만 기자로서 몰속의 한 덩어리 사막이 되길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늘 공부하는 기자가 되겠습니다.'



**김지선** 82. 7.29  
이화여대 언론정보학 / 방송기자

"2년만에 꿈을 이뤘습니다. 되기도 어렵고 하기는 더 어렵다는 기자의 길. 이 길에 들으신 이상, 언제나 우리를 위한 내가 될 것을 약속합니다."



**윤미** 82.10.1  
국민대 시각디자인학 / 그래픽

안녕하십니까. YTN 그래픽 디자이너 신입사원 윤미입니다. 한 달 반가량의 전형과정을 거치고 드디어 YTN에 입사하게 되었습니다. 합격통지가 있던 날은 일 초가 일 분 같이 느껴졌고 합격 소식을 받고 나서도 실감이 나지 않아 자꾸 이메일을 열어 보았습니다. 첫 출근을 하고 나서야 제가 이제 YTN의 일원이 되었구나 라고 조금이나마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간절히 원했던 만큼 더욱더 노력하여 YTN의 새로운 인재가 되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는 모습 지켜봐 주세요~



**이상엽** 80.8.17  
경북대 사학 / 촬영기자

"영화감독, 드라마PD, 사진작가 등 세상엔 카메라로 먹고사는 이들이 많습니다. 이들은 저마다 새로운 세상을 창조하는 神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상취재 기자는 神이라기 보다는, 믿음 때문에 세간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새로운 세상이 아닌, 제가 맡고 숨 쉬는 이 땅에서 믿음을 줄 수 있고, 또 신뢰받을 수 있는 기자가 되겠습니다. YTN에서 그 초심을 지켜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철우** 77.9.30  
전북대 영문학 / 촬영기자

YTN합격자 발표가 나던 5월 28일은 제 또 다른 생일이 되었습니다. 너무나 기쁩니다. YTN은 그렇게 기쁘게도 제게 커다란 존재로 다가왔습니다. 사막을 헤매던 제게 오아시스를 보여주고, 메마른 제게 단비를 뿌려주었습니다. 이제 이곳 YTN에서 선배님들의 훌륭한 소양과 자긍심을 바탕으로 깊이 뿌리를 내리고 큰 나무로 성장하겠습니다. 끊임없이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태어난 그날의 기쁨을 잊지 않고 매일매일 새로워지도록 하겠습니다. 선배님들께서 쌓아 놓으신 공동체에 누가 되지 않는 11기 후배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종근** 80.11.5  
서강대 전자공학 / 방송기술

"아, 합격했습니다. 무조건 열심히 하겠습니다. 배우고 또 배우겠습니다. 끈기와 열정으로 YTN을 선진방송기술국으로 이끌어갈 인재가 되겠습니다. 제주도에서 태어났지만, YTN에서 죽겠습니다."



우즈베키스탄 출장 보고

# “한국인으로서의 긍지와 자부심을 느낀다”

## 우즈베키스탄 TV, YTN 시험방송 실시

지난 3월 27일부터 4월 4일까지 9일 동안 중앙아시아 우즈베키스탄의 수도 타슈켄트를 방문해 YTN 인터내셔널 수신 기반 확대를 위한 실무 작업을 했다. 이 기간에 현지 방송사 관계자와 만나 YTN 인터내셔널 방송 시간 확대와 양사 간의 협력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또 우즈베키스탄 주재 우리 대사관 민원실에 YTN을 시청할 수 있는 안테나를 설치했다.

이 밖에도 타슈켄트 시내에 있는 특급호텔인 인터콘티넨탈 호텔과 그랜드 미르 호텔에 YTN을 고정 편성해 호텔 투숙객들이 YTN을 시청할 수 있는 방안도 협의했다. 서울 출발할 때부터 이륙항공기가 기체 이상으로 회항하는 바람에 다음날 새벽에 다시 출발하는가 하면 우즈베키스탄 현지에서도 수신 안테나를 구하지 못해 긴급 수배에 나서는 등 우여곡절의 연속이었던 출장이지만 가는 곳마다 쏟아진 현지 동포들로부터의 진심 어린 격려와 감사의 인사로 크고 작은 어려움을 잘 극복할 수 있었다. 더구나 올해는 구소련 치하에서 하루아침에 생활의 터전을 떠나 황무지나 마참가지였던 중앙아시아 지역으로 강제 이송돼 온 지 70주년이 되는 해여서 동포들의 감회는 새로운 듯했다.

70년 전인 1937년, 일제의 압제를 피해 블라디보스토크에 모여 살고 있던 우리 동포 18만여 명이 스탈린의 강제 이주 명령에 따라 이부자리 하나 챙길 시간도 없이 하루 밤사이에 야간 화물열차에 실려져 장장 6000킬로나 떨어진 이곳 중앙아시아에 내버려졌던 피눈물의 역사를 동포들은 기억하고 있었다. 남의 나라에서 그 눈물과 한을 딛고 우뚝 선 우리 동포들이기에 그들이 한국과 동시에 생방송 되는 YTN을 시청하는 것은 다른 어느 나라의 동포들보다 감회가 새로울 수밖에 없었던 것 같다.

### 중앙아시아 동포들의 희망, YTN

불과 5~6년 전 전만 하더라도 이곳 중앙아시아에서 한국과 동시에 생방송으로 한국의 뉴스를 생생하게 본다는 것은 상상도 못할 일이었다.

지난 2004년 YTN인터내셔널이 출범한 이후 조금씩 조금씩 위성 안테나를 통해 YTN을 시청하는 동포들이 늘어난 데다 지난 3월부터 우즈베키스탄의 최대 케이블 방

송국인 까말락 TV가 하루 15시간씩 YTN을 방송하면서 YTN은 이제 동포들의 가장 큰 즐거움으로 자리 잡고 있다고 한다. 한 동포는 “YTN을 보고 있으면 한국인으로서의 자부심과 긍지가 저절로 느껴진다.”며 YTN이 너무 고맙다며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더구나 최근 한국으로의 산업 연수 등이 가능해지면서 한국어를 익히려는 동포 2세들이 늘어나고 있어 뉴스를 통해 한국의 문화와 언어를 생생하게 익힐 수 있는 YTN은 가장 인기 높은 채널이 되고 있다고 했다. 우즈베키스탄에는 수많은 소수 민족이 살고 있지만 고려인으로 불리는 우



우즈베키스탄 대사관에 설치된 YTN 전용 TV

리 동포들이 각계각층에서 뛰어난 기량을 발휘하고 있어 누구보다 높은 긍지를 가지고 있었다.

우리가 만드는 방송 프로그램 하나가 하나가 이곳 중앙아시아 동포들에게는 큰 즐거움과 희망인 만큼 더욱 최선을 다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다만, 전반적인 예산 부족으로 더 많은 동포가 YTN을 시청할 수 있는 위성 안테나를 확보할 수 없다는 점이 못내 아쉬웠다. 따라서 한민족 네트워크 구축이라는 더욱 큰 목표에서 앞으로 정부차원에서의 적극적인 지원이 있어야 할 것이다.

김익현 차장대우 해외방송팀

### 게시판

#### ■ 기구개편

4.19일자 ▶ 1)경영기획실 내의 기획팀, 뉴미디어팀, 재무회계팀을 기획총괄팀, 미디어전략팀, 경영관리팀으로 변경 2)보도국의 CQ계를 폐지하고 부국장(취재, 편집, 영상)제도를 신설 3)기술국 내 인프라팀(본사 및 자회사의 방송시설 구축과 유지 기능) 신설 4) 과학 TV 추진단 명칭을 '사이언스 TV 본부'로 변경

6.1일자 ▶ 사이언스 TV 본부를 '사장' 직속에서 '상무' 산하 기구로 변경하고 사이언스 TV 본부 내 편성기획팀, 제작팀, 방송지원팀을 신설.

#### ■ 입사

이흥연 재무회계팀 4.10 / 노시준 차장대우 경영관리팀 5.2 / 김현우 미디어전략팀, 김대공 · 이상훈 · 박세영 · 민형준 · 김영록 · 지정운 · 박인식 · 박레오 · 박태환 사이언스TV본부, 김미정 · 정지윤 영상편집팀, 문현철 · 장종현 제작기술팀 5.7 / 강진원 · 김용래 · 김지선 · 박조은 · 신윤정 · 이승현 · 장아영 · 윤미 · 시철우 · 이상엽 보도국, 오종근 · 장민성 기술국 6.4 / 김동언 · 이민우 사이언스TV본부 편성기획팀, 김강륜 사이언스TV본부 제작팀, 금신혜 국제부, 남궁성기 · 이용준 제작기술팀, 6.11 / 박성철 타워운영팀, 김주희 사업팀, 6.18 / 윤석현 제작팀 6.25

#### ■ 퇴사

진성훈 영상편집팀 4.12 / 강태식 영상편집팀 4.13 / 심종남 차장대우 경영관리팀 5.8 / 장민성 기술국 6.25 / 박레오 사이언스TV본부 제작팀 6.26 / 서민원 총무팀, 박학연 타워운영팀, 이도표 전무 마케팅국 6.30

#### ■ 승진

▶차장대우 김재학 · 최경순 디지털기획팀, 정재훈 뉴스기획팀, 박홍구 · 이재홍 경제부, 지순한 사회1부, 강현석 부산지국, 문한수 광주지국, 박희천 · 이상순 국제부, 윤경민 동경지국장, 김익현 해외방송팀,

박경석 뉴스1팀, 오승엽 · 이강문 뉴스2팀, 김승재 뉴스3팀, 김종욱 뉴스5팀, 오재영 그래픽팀, 이성모 영상취재팀, 이승주 영상편집팀, 이재우 기술관리팀, 김한수 · 김한철 · 배경호 · 이덕희 제작기술팀, 강희택 · 서대원 · 이병문 · 이승우 송출기술팀, 백영선 · 주윤영 중계팀, 윤진완 마케팅기획팀, 김남식 마케팅2팀, 이동열 사업팀, 정해봉 YTN DMB 파견, 강계현 디지털기획팀, 심종남 재무회계팀, 정미순 총무팀, 이경아 보도국, 신성원 · 이용구 편성운영팀, 신웅진 정치부, 김희준 · 함형건 경제부, 김동철 강릉지국, 전재영 · 지대웅 부산지국, 권영희 · 김선희 문화과학부, 김기봉 · 김정희 뉴스1팀, 이승은 뉴스3팀, 김호준 뉴스6팀, 기내경 · 변재철 · 손영범 그래픽팀, 김경아 · 김선희 · 김정아 · 정찬배 앵커팀, 강근배 · 강재환 · 고민철 · 권혁용 · 김학목 · 노옥상 · 박민양 · 서승철 · 양준모 · 이승환 · 최계영 · 최영욱 · 하성준 영상취재팀, 김윤석 · 김태운 · 원종호 영상편집팀, 오유철 · 정철우 영상기획팀, 조상현 기술관리팀, 김용수 · 김지영 · 김태우 · 박치훈 · 박현찬 · 송기섭 · 이기주 · 이상경 · 장승욱 · 정광웅 · 조민철 · 최병수 제작기술팀, 양태열 · 이성호 · 이정우 송출기술팀, 김용영 중계팀, 김호석 · 인호연 마케팅기획팀, 정경남 · 최광희 YTN DMB파견 4.13 ▶국장 진상욱 경영기획실장 ▶국장대우 홍상표 보도국장 ▶부국장 최남수 경제부장 ▶부국장대우 이정우 대전지국장, 최수호 총무팀장 ▶부장 문중선 홍보심의팀 ▶부장대우 채장수 대구지국장, 이동현 YTN DMB 파견, 이재운 앵커팀장, 김호성 스포츠부장 ▶차장 박주역 부산지국, 이건선 제작기술팀, 정진웅 중계팀, 염해진 영상편집팀 4.20

#### ■ 전보

진상욱 경영기획실장, 이홍렬 취재부국장, 유석현 편집부국장, 홍문표 영상부국장, 황선욱 뉴스기획팀장, 최남수 경제부장, 김익진 국제부장, 박근표 뉴스1팀장, 이양현 뉴스6팀장, 조항운 영상취재팀장, 백선기 영상기획팀장, 조성룡 부장대우 인터넷콘텐츠 담당, 박성호 부장 국제부, 김승환 부장 홍보심의팀, 박종찬 기술관리팀장, 이계성 인프라팀장, 임영선 중계팀장, 김용섭 마케팅기획팀장 4.20 / 유충섭 차장대우 기획총괄팀, 정재훈 차장대우 · 원경태 차장대우 · 진유진 보도국, 조승호 차장대우 편성운영팀, 우장균 차장 · 김태현 차장대우 · 장민수 · 이대건 정치

부, 김기봉 차장대우 · 박희천 차장대우 · 신준준 · 강태욱 · 이지은 경제부, 김종욱 차장대우 · 황선욱 · 성문규 사회1부, 이병식 차장대우 사회2부, 이양희 문화과학부, 송경철 차장 · 정석영 차장대우 · 신웅진 차장대우 국제부, 정종석 차장대우 · 김지영 차장대우 · 김희준 차장대우 뉴스1팀, 김정희 차장대우 뉴스2팀, 박홍구 차장대우 뉴스4팀, 박순표 · 이승민 뉴스5팀, 구수본 뉴스6팀, 함형건 차장대우 앵커팀, 이문세 차장대우 · 정희인 차장대우 · 박정호 · 김인규 차장대우 · 염덕선 · 김민 영상취재팀, 권석재 · 강영관 영상편집팀, 이성모 차장대우 · 최계영 차장대우 · 최용호 영상기획팀, 권한주 제주지국, 정해봉 차장대우 · 송병준 기술관리팀, 김태동 차장 · 유화성 차장대우 · 김동후 차장대우 · 정경남 차장대우 인프라팀, 최영훈 송출기술팀, 이정우 차장대우 · 백영선 차장대우 제작기술팀, 배경호 차장대우 · 권혁근 중계팀, 김신영 · 김선미 사이언스TV본부, 김진두 차장대우 · 박진언 · 장훈희 사이언스TV본부 겸직 4.26 / 김중술 사이언스TV본부 편성기획팀장, 한정호 사이언스TV본부 제작팀장, 신광호 사이언스TV본부 방송지원팀장, 노시준 경영관리팀장 6.1 / 최대만 부장 총무팀 6.7 / 김신영 · 김대공 · 박태환 · 박세영 · 이민우 · 김동원 사이언스TV본부 편성기획팀, 지정운 · 박인식 · 민형준 · 박레오 · 김영록 · 이상훈 · 김강륜 사이언스TV본부 제작팀, 김선미 사이언스TV본부 방송지원팀 6.12 / 박성호 워싱턴지국장 6.15 / 기구개편에 의한 일괄발령 경영기획실 기획팀 → 기획총괄팀, 경영기획실 뉴미디어팀 → 미디어전략팀, 경영기획실 재무회계팀 → 경영관리팀, 과학TV 추진단 → 사이언스TV본부 4.20

#### ■ 부음

김동우 차장 청주지국 부친상 4.14 / 성유경 타워운영팀 빙모상 4.30 / 이동수 타워운영팀 부친상 5.4 / 김남식 차장대우 마케팅2팀 부친상 6.14 / 조성룡 부장대우 보도국 빙모상 6.22

#### ■ 결혼

김정한 차장대우 영상취재팀 6.17 / 장종현 제작기술팀 6.24



일리노이 주립대 학생, YTN 연수

# 즐거웠고 유용한 체험이었습니다

일리노이 주립대 학생 3명이 한국 언론에 대한 경험을 쌓기 위해 4월 23일부터 5월 4일 까지 2주간 YTN에서 인턴생활을 했다. 이들은 국제부를 시작으로 정치부, 경제부, 사회1부, 문화부, 스포츠부, 뉴스팀, 해외방송팀 등을 돌면서 방송 현장을 둘러보고 뉴스 생산 과정을 체험했다. 인턴십 프로그램을 마친 학생들에게 인턴십 과정에서 본 YTN에 대한 느낌과 소감 등을 들어봤다.

## Q YTN과 YTN 기자들을 본 소감과 느낌 ?

**베일리 데이츠** ▶YTN을 방문해 사람들을 만나보니 정말 따뜻하고, 친근감 넘치는 방송국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부서별로 함께 힘을 모아 일하는 모습이 특히 인상 깊었습니다. 회사는 직원 한 사람 한 사람을 존중하고 있었고, 각 팀을 회사의 중요한 일부로 여기고 있었습니다. 모든 지역을 방송권역으로 포함해 누구나 쉽게 YTN을 볼 수 있는 기술력을 갖추고 있다는 점에 놀라웠습니다. YTN에서 2주 동안 생활하면서 많은 분이 환영해주셨고, 저희에게 큰 용기를 주셨습니다.

**브리타니 파슨스** ▶YTN은 매우 열려있는 회사라고 생각합니다. 처음 회사의 방송시설을 둘러볼 때가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제가 무엇을 질문하든지 직원 분들은 친절하게 하나하나 가르쳐 주셨습니다. YTN 직원들은 모두 한 팀으로 움직이고 있었고, 서로 한 가족처럼 대해주고 있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곳이 일하기에 최적의 장소가 아닌 것 같습니다.

**티** ▶24시간 뉴스채널 YTN은 가족 같은 분위기가 가득한 회사인 것 같습니다.



▲일리노이 대학생들이 하루 동안 인턴십을 통해 정들었던 해외방송팀과 함께 - 이들은 YTN 방송이 위성을 통해 전 세계에 송출되고 한인 교포들이 살고있는 100여개 국가에서 직접 보고 있다는 설명에 감탄과 놀라움을 표시했다.



**티**  
방송제작 전공  
4학년

**브리타니 파슨스**  
텔레비전 방송 전공  
3학년

**베일리 데이츠**  
방송저널리즘 전공  
2학년

## Q 인턴 과정 소감은?

**베일리 데이츠** ▶YTN 인턴십 프로그램은 학생들에게 멋진 기회를 제공해준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경험을 할 수 있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 방송국 안팎에서 방송 제작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또한 24시간 동안 뉴스 프로그램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도 알게 되었습니다. 부서마다 서로 다른 특성이 있어 매시간 다양한 내용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방송 기자들과 함께 서울 곳곳을 돌아보고, 그뿐만 아니라 방송국 내에서도 함께 일할 수 있어서 정말 즐거웠습니다. 모든 경험이 재미있었고, 언론학을 공부하는 학생으로서 매우 유용한 체험이었습니다.

**브리타니 파슨스** ▶이번 인턴십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돼 정말 영광입니다. 회사 내 여러 부서를 살살이 둘러볼 수 있었습니다. 팀마다 독특한 특성이 있어서 매일매일 새로운 것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이번에 익힌 지식과 경험은 나중에 반드시 큰 도움이 되리라 믿습니다. YTN에서 인턴으로 생활한 일은 제 생애 최고의 경험 가운데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이곳에서 만난 많은 분이 제게 많은 영향을 주셨습니다. 모두 항상 친절하고,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었습니다. 저도 나중에 YTN 식구들처럼 항상 최선을 다해 일하고 싶습니다.

**티** ▶YTN 인턴십 프로그램을 통해 방송에 관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고, 더불어 좋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 Q 인턴십 과정에서 잊을 수 없는 경험은?

**베일리 데이츠** ▶취재현장에서 많은 기자와 함께 했던 시간을 절대로 잊지 못할 것입니다. 열심히 일하고, 많은 것을 배운 후에 함께 가진 뒤풀이 시간은 서로 더 많이 알게 해준 뜻 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이런 기회를 통해 한국 언론인들의 문화와 생활방식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저희를 친절하게 대해주시고, 함께 즐겁게 지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브리타니 파슨스** ▶잊을 수 없는 경험이 정말 많았습니다. 딱 한 가지를 꼽기가 어려울 정도입니다. 그 가운데 사회부 기자들과 함께한 시간이 특히 기억에 남습니다. 한국전쟁 때 사용된 폭발물이 한 공사장에서 발견됐다는 속보를 사회부 기자와 함께 취재하러 나갔습니다. YTN이 현장에 가장 먼저 도착했기 때문에 최대한 발견 현장에 가까이 가서 정보를 얻어야 했습니다. 폭발물이 있는 곳에 가기가 망설여지고 무서웠지만, 함께한 사회부 기자와 영상 취재기자들이 제게 큰 용기를 줬습니다. 고맙습니다. 흥선기 기자님!

**티** ▶특히 한국은행 박물관을 방문했을 때가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또한, 국회의사당에 가서 기자회견을 본 것도 좋은 경험이었습니다. 기자회견장에서 국회 관계자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 알아들을 수는 없었지만 생생한 뉴스의 현장을 목격할 수 있어서 정말 좋았습니다.

## Q YTN 식구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베일리 데이츠** ▶제가 이곳에서 좋은 경험을 하고 방송에 관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게 해주셔서 YTN 식구 모두에게 감사드립니다. 많은 친구를 사귈 수 있었고, 기자들과 그 외 팀원들에게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저희와 함께 시간을 보내주시고, 따뜻하게 맞이해 주신 모든 YTN 식구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브리타니 파슨스** ▶YTN 모든 식구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은 모두 최고의 언론인이라고 생각합니다. YTN을 많이 좋아하게 돼 떠나기가 정말 아쉽습니다. 제게 도움을 주셨던 모든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언젠가 다시 한 번 이곳에 와서 여러분을 뵙고 싶습니다. 휴가차 시카고에 오신다면 제게 꼭 연락해주세요! 언제든지 대환영입니다! 이메일로 연락해주세요! bsparso@ilstu.edu

**티** ▶YTN 가족 여러분! 앞으로도 좋은 방송 부탁드립니다!

진행 김여진 앵커 해외방송팀



돌발영상팀

# ‘돌발영상팀 인력은 몇 명일까요?’

돌발영상팀 구성원은 ‘일단’ 7명입니다.

‘나는 절대 돌발영상 못한다’며 버티다가 결국 인사발령과 함께 억지로 끌려온 황보연, 정병화 기자와 몇 년째 돌발영상에 묶여있는 임장혁, 이렇게 3명이 각각 한 코너씩을 맡아 PD 역할을 하고 있고, 지윤정, 이상미, 이우리, 서세나 씨, 이렇게 4명의 AD가, 덜 떨어진 3명의 PD들을 다독거리며 사실상 팀을 이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돌발영상팀 인원은 7명 뿐이 아닙니다. 불규칙한 녹화 시간에도 별 말 없이 묵묵히 3부조에서 기다려주며 세심하게 녹화 방송을 이끌어주시는 이건설 감독 외 기술팀 스태프들이 사실상 돌발영상팀의 주축을 이루고 있습니다.

돌발영상 팀원들은 또 있습니다. 점심시간을 헌납하며 돌발영상의 그래픽을 제작해주는 그래픽실 선후배들, 매번 방송시간에 임박해서 마스터 테일이 도착해도 별 말 없이 대처해주는 구조정실 선후배들이 돌발영상팀의 한 축을 이루고 있습니다. ‘장비가 이상하다’는 반복적인 전화가 귀찮을 법도 한데 언제든 달려와 남은 편집기의 수명을 늘려주고 가시는 김형욱, 이재우 차장을 비롯한 기술관리팀 선후배들과, 제작상의 실수를 즉각, 조용히 바로잡아주시는 심의실 대선배님들이 또 다른 한 축을 맡아주고 계십니다.

소개해드릴 돌발영상팀원들은 아직 많습니다. ‘이 테일 한번 불만하다’며 따끈한 소스를 제보해주는 영상편집팀 선후배들과 ‘오늘 어디어디서 무슨 무슨 일이 있었으니 한번 챙겨보라’고 전화해주는 정치부, 사회부 등 취재부서 선후배들도 돌발영상팀을 이루고 있습니다. 후배들이 필요한 것은 없는지 항상 신경쓰면서 뒷감당을 해주시는 황선욱 뉴스기획팀장께서 고문을 맡고 계시고, 칸막이 하나씩을 사이에 두고, 편집기에서 울려 퍼지는 데시벨 측정 불가의 소음에 막대한 청각 피해를 입으면서도 오히려 격려로 화답해주시는 옆자리 국제부 선후배님들과 맞은 편 조성용 부장께서 정신적 후원자 역할을 담당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꼬박꼬박, 돌발영상이 방송되자마자 YTN 홈페이지에 재빨리 띄우고, 포털사이트에도 전송하고 있는 디지털 YTN 식구들도 돌발영상 팀원들입니다.

무엇보다, 돌발영상 업무의 50% 이상을 해주고 계신, 이들이 없으면 아예 돌발영상 제작 자체가 불가능한, 팀의 ‘핵심 멤버들’을 소개해드립니다. 바로 ‘돌발영상의 밑천’을 발로 뛰며 부지런히 장만해다 주시는 영상취재부 촬영기자 선후배들입니다.

단신

이문세 · 오유철 · 김태운 기자, 이달의 카메라기자상 수상



이문세 · 오유철 · 김태운 기자가 ‘최후의 낙원 DMZ’ 2부작으로 제14회 이달의 카메라기자상 보도 기획부문을 수상했다. 시상식은 6월 15일 등촌동 그린윌드호텔에서 열렸다.



▲ 돌발영상팀은 매일 오후 5시면 어김없이 아이템 회의를 갖는다. 각자 발굴한 아이템을 발표하면 임장혁 팀장의 날카로운 질문이 이어진다. 차츰 분위기는 진지해지고 뜨거운 열기까지 느껴진다. 모두 회의에 열중한 가운데 임 팀장은 열심히 PC에 회의 내용을 기록하고 있다.



◀ 왼쪽부터 시계방향으로 지윤정, 이우리, 정병화, 임장혁, 황보연, 이상미, 서세나

그밖에도 지면상 언급하지 못한 YTN내 다른 돌발영상 팀원들을 다 따지면 ‘624명’은 되는 것 같습니다.

YTN의 전체 직원 수이기도 한 돌발영상팀 624명을 대신해 저희 실무자 7명이 ‘앞으로도 더욱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당초 돌발영상 프로그램 확대의 근본 이유이기도 한 ‘별도 광고’가 빨리 붙었으면 하는 것과, 새벽 시간대에 편중돼 있는 돌발영상 편성 시간이 조금이라도 개선됐으면 하는 작은 소망이 있긴 있습니다.

임장혁 돌발영상팀장

과학방송채널사업 협약 체결식



과학방송채널사업 협약 체결식 과학기술부와 YTN의 과학TV 본계약 체결식이 4월 20일 과천 과기부 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번 체결식에는 김우식 과학기술부

총리겸 과학기술부 장관과 표완수 YTN 사장 등 과학기술부와 YTN 대표 10여명이 참석했다.

이와 함께 5월 2일 화성시청에서 YTN 사이언스TV와 경기도 화성시, 한국천문연구원 등이 해양천문테마파크 MOU를 체결하고 건설·운영에 서로 협력하기로 했다. 화성시는 190억 원을 들여 오는 2009년까지 서신면 궁평리 일원에 천문대, 야외체험실 등을 갖춘 5천 평 규모의 해양천문테마파크를 조성할 계획이다. 또 6월 18일엔 한국원자력연구원 상호협력 MOU와 대덕연구개발특구 기관장협의회 MOU를 잇따라 체결했다.